

## “미래 부처님을 키우자”

전국교사불련 창립 청소년 포교사단으로 부상



**금모으기 불심 장사진** 조계종과 한국불교총연합회가 주최한 나라살리기 금모으기 법회가 22일 낮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전국신도회장 송재건씨가 소지하고 있던 금제품을 내놓았다. 이날 정오에는 도선사에서도 금모으기 법회가 열려 2백여 신도가 참여했다. <관련 기사 29면>

‘미래의 부처님, 청소년 포교 우리가 맡는다’  
 조계종 포교원 직할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일완승·인터뷰 3면)가 18일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창립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백여명의 교사불자들은 이날 창립법회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숙 회회고 교사를 초대회장에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을 마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중한 학업과 가치관의 미정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고통의 강을 건너 주는 훌륭한 ‘덕목’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낌없이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창립법회는 지난 96년 조계종의 ‘청소년의 해’ 선포에 이은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현근)의 창립, 같은 해 7월 주체 제1회 교사불자연수회 개최 등으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교사불자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6개월여의 산고 끝에 얻

### 현대불교 명예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보다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재를 운용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활동력 강한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 자격: 주부, 각 직장 및 불교단체종사자(지역 무관)
- 인원: 00명
-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 대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 97년도판 현대불교 합본집

1997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7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7년도 불교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큰스님들의 법문,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등 삼의 지혜와 신령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생령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7년 1년분(109호~156호)
- 가격: 6만원(우송의 경우 할도의 발송비가 추가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02)737-8881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작은 실천 큰 기쁨

“장애인들의 자녀는 소년·소녀가장 못지 않게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며 사회로 진출할때 장애인 가정의 자립도 이룩될 수 있습니다.”  
 15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공두리차량봉사사업회가 주최한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학생 12명 고교생 23명 대학생 5명등 40명에게 8백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고 위안찬씨가 함께 배



들어졌다. 이날 참석한 2백여명의 장애인 부모와 자녀들은 코메디언 엄용수씨(장애인 위문봉사단장)의 진행과 어머니봉사단이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모처럼 함께 어울렸다.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는 이들의 얼굴에 핀 웃음에는 IMF한파가 끼어들 수 없었다. 이 행사는 나경선법사(전국장애인복지회장)가 동봉서주하며 노원구청·미도파 연예인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어렵게 마련된 것. 특히 장학금금 조성을 위해 자선바자회를 열고 장애인회화들에게 1만원씩 모금을 하는 것까지 나법사가 목욕히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문화재 관리 지자체이관 ‘반대’

문화재 관리 지자체이관 ‘반대’  
 교계, 정부 개편안에...공원공단도 환경부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 원장 박관선)는 문화부의 구조 조정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의 기구축소와 일부 문화재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골자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불교계와 문화 학술계는 문화재관리국의 기능을 축소 분산시키는 것은 민족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21면>  
 또 정부조직개편심의를 위한 내무부의 자연보호운동 및 국민공원 관리기능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도 마련 26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의 기능 축소와 일부 문화재관리업무의 지방자치체 이양,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환경부 이양등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금명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문화재위원회와 한국고고학회 등도 조직개편위에 건의문과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

### “해인골프장 경북도 승인 원인무효”

사찰환경포럼서 전재경교수 주장  
 대법원 ‘취소부당’ 판결 법리상 위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위배되고 경북도지사의 골프장 사업 승인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프장 건설허가에 대한 법칙용이 자연공원법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에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같은 주장은 21일 해인골프장건설 추진과정과 문제점,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계종 사찰환경포럼 제1회 사찰환경포럼에서 나왔다.  
 전재경교수(한국법제연구원)는 “설립허가 자체부터 법칙용이 잘못됐다”며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해정 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은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설연휴로 161호 2월11일 발행

절마다 IMF 험터 마련 23면

열린마당 ‘문화재관리 지자체 이관’ 21면

“한국불교에 반했어요” 9면

### ● 불탄성지 네팔 롬비니원 대성석가사 법당 건립을 위한 「1인 1만원 만인 수회동참 권선문」 ●

귀의 상중삼보하하고  
 불탄성지 네팔 롬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제1요사 1층 261평, 2층 261평, 3층 261평 도합 783평의 완공단계와 법당 1층 1016평, 2층 780평, 3층 483평, 옥상 290평 도합 2569평의 기초 공사를 마치고 된 것은 네팔 카트만두 주재 코넬코 사장 보광 정현일 거사님 내외분과 녹다산 롬비니개발위원회 전 위원장님 내외분,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수송행 한명목 회장님 용천 박시민 고문님 내외분과 강 금강업, 나 관음행, 박 대원경, 전 대심행, 강 무량화, 박 대명성, 김 관음주, 노 선생당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고문님들의 성원 시주와 서울 종로 대각사,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천룡사 부산포교원의 관심 있는 불자 등의 성원과 국내외의 뜻 있는 고승 대덕 스님네와 선남자 선여인의 동참으로 이룩되었으므로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이 기반을 통하여 롬비니 대성석가사 법당 건립을 위하여 1인 1만원 만인 수회 동참으로 이 거룩한 불사를 수행하고자 하옵니다.  
 이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이 대복전에 복덕 지비 지혜의 씨앗을 던지는 계기로 삼아 땅에 쓰러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불인연 되어드리다.

### ●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롬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 불탄절에 「1인 1등 1만원 만등불사 권선문」 ●

상중삼보님께 귀의하나다.  
 이곳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롬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에서 국내외 4부대중 제위의 성원으로 제 1요사가 완공 단계에 있고 대웅보전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  
 남방불교의 준례에 따라 부처님이 탄생하신 무인년(서기 1998년)음력 4월 15일 불탄절 법회에 국내외 3만여 명의 대중이 운집하여 법요를 거행하고 이날 저녁에는 1인 1등 1만원 만인동참 1만 관등불사를 병행하나다.  
 이에 수회 동참하시어 만대의 복전을 이룩하시옵소서

네팔 신타르타나가르 부판데히 롬비니 대성석가사  
 조실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 佛心 道文 주지 覺賢 法信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장 고문진 합장

- 서울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각사 전화 02)765-0972 팩스 02)742-2126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산 140번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 전화 02)583-1475, 582-0108 팩스 02)583-2700
- 네팔 P.O.Box 37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ra Sa Temple) Siddhartha Nagar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 001-977-71-29474
- 경주시 내남면 용성3리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전화 0561)748-8815 팩스 0561)748-8818
- 부산 서구 남부민2동 443 천룡사 부산포교원 전화 051)242-4234 팩스 051)244-8468

이 광고 비용은 부산거주 소생 김관음주가 보시할 수 있는 복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생은 어제 날짜로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후원회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부회장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장님과 고문진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선근인연을 짓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무인년(서기 1998년) 3월의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의 양력3월, 음력3월(양력4월)의 행사 준비에 힘쓰시는 회장님과 고문진의 노고에 대하여 정중히 위로하는 바입니다.

● 계좌번호 086-14-0009-164 (예금주 임 운 화)  
 국민은행 서초남지점